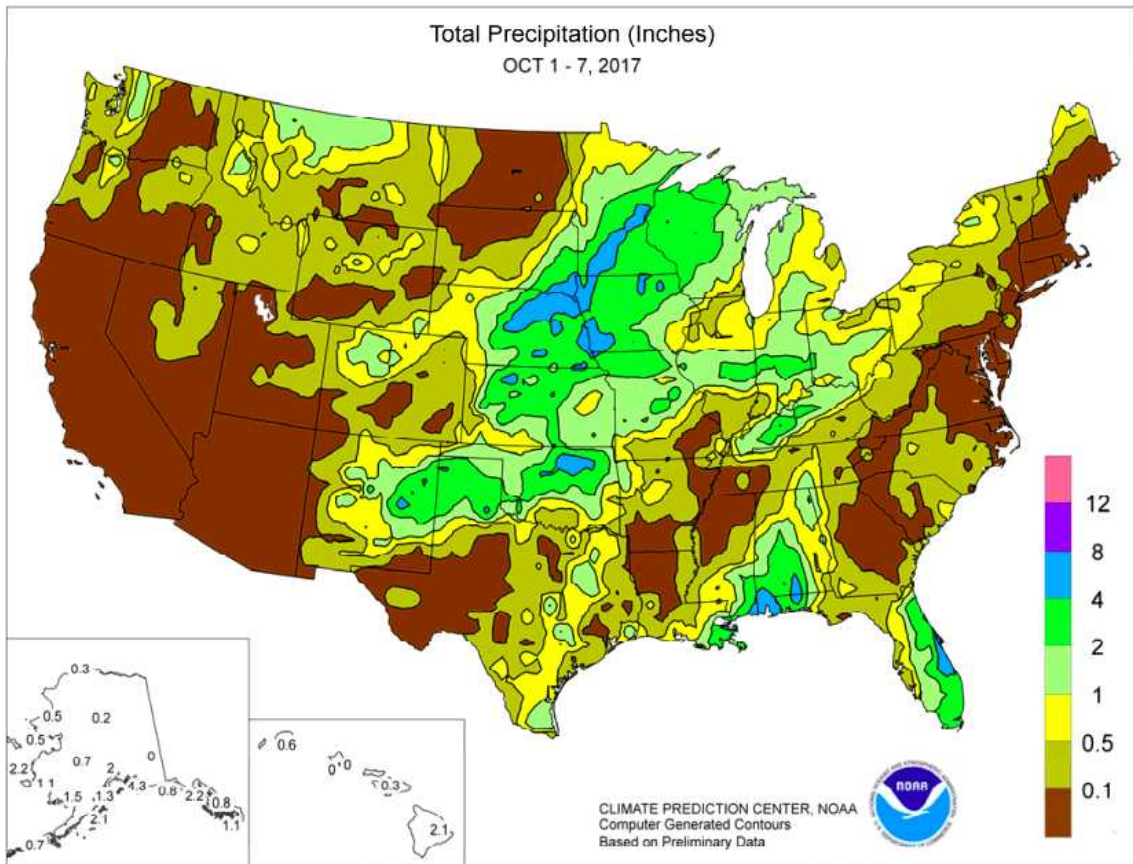


10월 1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41)

□ 미국 기후 현황(10/1~10/7)

지난 10월 8일,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 허리케인 Nate에 의해 Mississippi의 Biloxi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허리케인의 최고풍속은 85mph였으며, 허리케인이 몰고 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걸프만 연안 중부 일대에서부터 오하이오 및 북동부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플로리다 일대에서는 Nate가 상륙하기 전부터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반면, 대서양 연안 북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중남부의 남부 일대에서는 2~4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고,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몬태나 북부 일대에서는 주 초반 반짝 추위가 찾아왔고, 주 후반에는 눈이 조금 내렸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서부 사막지역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맑은 하늘이 이어졌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고, 북부 평원과 로키산맥 북부, 내륙산간지역 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정도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10/02~10/08)

동부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고, 특히 오대호 인근부터 미시시피강 중류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다. 몬타나, Great Basin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정도 낮았다. 서부와 대서양 연안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한 반면, 중부의 옥수수 재배지 일대와 걸프만 연안 일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 □ 세계 기후 현황(10/01~10/07)

■ 유럽: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였다. 잉글랜드, 프랑스, 폴란드 등에서는 대서양에서 생성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저기압이 발칸반도 남부에서 정체하면서 크로아티아와 다뉴브강 일대에서도 15~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겨울작물의 생육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수확작업은 비로 인해 연기되었다. 프랑스, 폴란드 및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지만, 현재까지는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우기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31~36°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구소련(서부): 북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남부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북부, 러시아 북부 일대에서는 10~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주요 겨울밀 재배지역인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부터 러시아 남부 일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특히, Krasnodar Krai 지역은 지난 9월 7일부터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 Heilongjiang, Jilin, Liaoning, 내몽고 등에서는 밤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남부의 양쯔강 일대에서는 곳에 따라 50mm 이상의 제법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렸다. 한반도 남부 일대와 일본에서도 비가 내려 벼의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지난 몇 주간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이번 비는 비교적 수확 시기가 이른 canola의 수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겨울밀 수확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부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며, 가뭄이 이어질 경우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사우스 웨일즈 북동부, 퀸즐랜드 남부 등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남부와 서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서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여름작물과 유지작물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Santa Fe, Chaco 동부, Formosa 등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와 북동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Buenos Aires, Corrientes, Misiones, Parana 강 하류 일대에서도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과 Cordoba 남부



등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Buenos Aires 남부에 이르는 지역까지 옥수수, 해바라기의 파종작업이 진행 중이다.

■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여전히 4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Mato Grosso 주정부에 따르면 10월 6일 기준 옥수수의 파종률은 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p 앞선 수치이다. 보다 남부의 Rio Grande do Sul, Minas Gerais 남서부 등에서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려 최근 파종작업을 마친 옥수수와 대두 재배지 일대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률은 각각 16%, 33% 인 것으로 나타났고, 밀의 파종률은 71%를 기록했다.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두의 파종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